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16호
3월 2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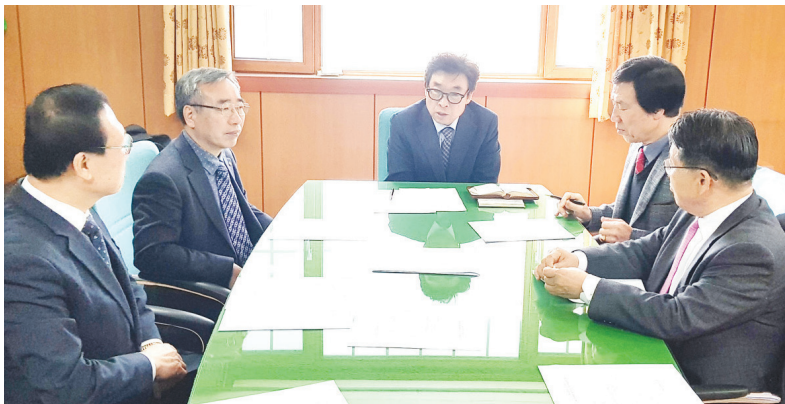
3월 29일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2월 26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8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강태진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15: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날마다 매순간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내려 놓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오일선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



는 서기 정의섭 목사의 경의보고를 통해 오는 3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다.

로 했으며 이를 공문발송과 함께 목양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본지 1116호 10면 광고 게재>

김용덕 목사 웨스트민스터신대원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

‘평생교육을 통한 교회 평신도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교단 중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는 지난 2월 14(목) 본 교단(예하성)과 복음주의 보수정통신학의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 및 졸업식에서 교육학 박사(D.L.D)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지도교수 김정희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평생교육학을 전공한 김용덕 목사는 ‘평생교육을 통한 교회 평신도 교육에 대한 연구(A study on Church Laity Education through Lifelong Education)’라는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용덕 목사는 그의 논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의 위기상황, 즉 교회의 양적 성장의 쇠퇴, 도덕적·

윤리적 타락, 교인들의 신뢰성 저하, 그리고 날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단들에 대한 무지와 무방비 상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교회의 평신도에 대한 교육 부재로 그 원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 타락된 사대에 평신도 교육 강화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추구한 칼빈의 제네바 교회와 오늘날 은혜와진리교회의 평신도 교육을 평신도 교육 모델로 분석하여 하나의 평신도 평생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평생교육 모델을 실제로 교회의 평신도 교육에 적용 및 평가함으로써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안산시흥지방회장 이인규 목사 공로패수상

‘시흥시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 출판 감사예배에서



이인규 목사
안산시흥지방 회장

시흥시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승식 목사)는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으며 550여 회원교회가 연합하여 시흥시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이밖에 시흥시 기독교연합회는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민족상잔의 6.25동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온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흥시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이인규 목사는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원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게 되었다.

이인규 목사는 오는 3월 4일(월)에는 고려대학교 통합임학식에서 인문정보대학원 교수회장으로 신입원우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3월 5일(화)에는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31절 100주년 기념성회에서도 증경회장으로서 공동기도를 인도한다.



‘이전과 지금과 장래’



조용목 목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벧전 2:9,10)

사람은 일생 동안 매우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적 성장에 따른 변화, 지적 향상과 정신적 성숙에 따른 변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거나 주위의 이동이며 여러 조직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신분과 지위 뿐 아니라 삶의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종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절대 안전을 의미하고 특별한 가치가 부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왕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러한 왕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악에 매여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을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왕의 지위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옛 사람에 속한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로서 왕답게 처신하면 옛 사람에 속한 성품과 환난과 시험과 마귀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에 있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일 년에 단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단에서 잡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원어 ‘히기오스’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른 구별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부활한 몸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게 처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쁨과 감사를 헌신과 봉사로 나타내자”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회장에 최남도 목사



서정복 목사
교단 선교국장

이날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는 갈 4:6-7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과 감사가 중요하다.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기쁨

과 감사를 선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본선교사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회소에 의해 정기지방회를 열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신앙회원 가입,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를 확정했다. 회원들은 함께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일본복음화를 위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신임회원 가입자는 성상훈 선교사(가나자와 독립그리스도교회), 백성 선교사(우에노 임마누엘교회)이며 새 회회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남도 목사(하리복음교회) 부회장 염순복 목사(순복음사비교회) 총무 김현정 목사(쓰루가살롬교회) 서기 김복순 전도사(후쿠오카사랑교회) 회계 이방연(순복음사비교회) 감사 김양희 목사(오오츠마키바교회)

한교연, 한기총과 통추위 구성키로

권 대표회장, “구체적 통합절차 진행해 나갈 것”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2월 18일(월) 오전 11시 대표회장실에서 제8-2차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과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한기총과의 통합 건을 다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31일 당선 인사차 내방한 자리에서 양 기관 통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여 양 기관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회장은 “합의서 서명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임원회에서 통추위 구성을 허락해 주면 한기총이 통추위를 구성하는 대로 양



측 통추위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한기총과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허락하고 위원 선임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대표회장은 임원회 직후에 통추위원장에 송태섭 목사, 위원 김효종 목사 김동성 목사

박만수 목사 김병근 목사 등 5명의 통합추진위원을 선임했다. 임원회는 또한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로부터 포럼 세부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가안정과 통일, 한국교회 위해 기도

한기보협, 제34회 정기총회 성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2월 1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본부 비전센터에서 40개 회원 교단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제34회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장사광 목사(예장합동성동 총무)의 사회로 이만나 목사(세계선교연합총회 총회장)의 기도, 신정섭 목사(기하성(성경) 총무)의 성경봉독, 도갑을 목사(문화예술위원)의 특송, 임준제 목사(예장개혁합동 총회장)의 빌 3:5-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바려야 할 것’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간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갖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자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지켜 속사람에 성령이 임하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예배는 ‘국가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장대봉 목사(예장보수합동 총회장)가,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단체)를 위하여’

홍정중 목사(대한자유감리회 감독)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박금옥 목사(예장호헌총회)의 한금송, 박정옥 목사(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의 한금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가임 및 신임총회장 패 증정, 대표회장 인사로 이어졌다.

한홍교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였지만 한 모퉁이에 시작되다가 있었다. 잘 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총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1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장한국 목사(예장진리총회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는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정희 목사의 기도, 회원전명, 개회선언, 회의록서기 및 흡석사찰위원 지명, 화순통과, 전회의록 낭독, 이사회 보고, 사무총장 및 서기보고, 18개 각 위원회 보고, 회계감사 및 회계보고를 들었다.



2019년 상반기 목회자 유가족에 장학금수여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 24명 장학금 받아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2019년 상반기 장학금수여식을 갖고 김진비(서울신대 4학년)·강하영(안고3), 서한결(중2)·강시우(군(중5) 등

대학생 13명에게 각각 2백만 원, 고등학생 7명에게 각각 1백만 원, 중학생 2명에게 각각 50만 원, 초등학생 2명에게 각각 40만 원 등 총 348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달식에 앞선 감사예배는 총무 최우성

목사 사회로 회계 감사일 목사의 기도, 클라리넷 최지훈·피아노 김한경의 특별이중주, 사무총장 권중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권중호 목사는 왕하 6:14-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둡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지도고문 윤영수 감독과 선교국 오일영 총무는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함께 성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 14만 경찰관복음화 위해 헌신 다짐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8일(월) 부안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전국 경찰과 그 가족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46차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취임했다. 오정현 목사는 제44차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어 한 회기동안 대표회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이번에는 한 회기를 걸러 재선임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경찰 여러분들과 교경중앙협의회 회원들의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안전

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경중앙협의회 회원들의 희생과 사랑에 격려를 보내며 특히 오정현 목사님을 대표회장에게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한 뒤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민주평통지문화의 김덕룡 수석부의장, 전 미공군군종감 본디 코스틴 총장, 중경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등이 축사를 전하며 교경협이 앞으로도 경찰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46차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오정현 목사는 “전국 14만 경찰관, 500여 경무단이 힘

을 합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강국으로 든든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소감을 밝히고 “기도하는 교회로 국가를 보호한다. 한 해 순직하는 경찰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경찰들을 더욱 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교경협은 1972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왔다.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 경찰은 소통의 폭을 더 넓히고 주민들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대학교 비대위, 불법매입 중단 촉구

“대진교육재단 뒷돈 거래 조사하라”

안양대 재학생 및 교수협, 동문 등으로 구성된 안양대학교비대위(위원장 이은규 前총장)는 지난 2월 18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 소재 중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당국은 불법 뒷돈 거래 매입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소속 중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이 현재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사 승인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에 있고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이미 2명의 관계자를 학교 구성원도 모르게 이사로 승인 받았다”면서, “대진교육재단은 타 종교 기독교사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을 즉각 중



단하고 관련자들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사법당국은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과의 뒷돈 거래를 통한

불법 매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촉구한다”면서 “전혀적인 불법 사학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를 관계 당국이 진행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민족과 세계복음화 위해 청지기사명 굳게 다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서재주 박사)는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감사예배를 지난 2월 15일 동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학위 수여식을 통해 명예철학박사 4명, 명예목회신학박사 1명, 철학박사 37명, 목회학신학박사 1명, 신학석사 5명, 목회학석사 28명, 목회학석사연구 5명, 문학 석사 49명 등 총 12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생들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각자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 감당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박재봉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 수여 및 졸업감사예배에는 오광만 교수(신학



신학)의 기도, 조재수 교수(후학석·박사원장)의 성경봉독, 한승희 교수(교회음악학과)의 특송, 화양동교회 관현악단의 현악 4중주 연주에 이어 총장 서재주 박사가 기서 제자 삼으라’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재주 총장은 설교를 통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평생을 가사 제자를 삼는 일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다니엘 이사장(美할리우드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목회를 통해 아들을 가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을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을 넘어 글로벌 신학대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피력했다.

이날 공로상은 김만호(졸업위원장) 전도사, 이사장상은 김성배 외 8명, 총장상은 신동희 외 18명이 받았다.

전 국민 ‘장 비우기 운동 본부’ 출범 감사예배

생명회복개발원 이강구 원장과 MOU 체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뒷받침되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 국민 3일 장 비우기 운동 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종로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교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국민 3일 장비우기 운동본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아시아통신 서울매일, 새한일보, 유료 저널한국본사, 시민프레스 굿데일리, 국제투데이뉴스, 경기etv뉴스, 뉴스A, 뉴스피어, 법률경영전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한국경찰문화신문 등이 후원했다.

최석우 목사(한국문화경향신문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이정춘 목사(전국민3일장비우기운동본부 총재, 경찰타임즈 대표)의 환영사와 김보라 목사(복음가수의 특송, 김동권 목사(합동총회 총회장)의 ‘3일 금식’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찬송에 이어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 신진목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정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나는 이번 1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 단체에 자신감이 생겼다. 전 국민이 3일 장 비우기 운동에 참여해서 한 달에 3일씩만 절식하면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우리 모두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폴리현숙)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동 순교자의소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펌박받고 있



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금 중국 정부는 도덕적인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흡수해서 공산당의 사회주의 목표실현을 앞당기려는 이른바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청두의 이룬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담임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펌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폴리 대표는 “지금 왕이 목사님과 이룬비언약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있고 그 선언서에 서명한 많은 목사님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소식을 전하며, “그분들이 시작한 ‘목사들의 공동성명: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 서명운동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폴리현숙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에릭폴리 공동대표는 “현재 이 서명운동은 미국과 호주 핀란드 등지에서도 시작됐으며 한국순교자의 소리는 이미 선언문에 서명한 중국목회자 439명의 100배에 해당하는 4만 3,9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3월까지 서명(https://china.declaration.com)을 받은 뒤 이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학교수 출신인 왕이 목사가 지난 2018년 9월에 작성한 이 선언문에는 “중국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라는 진리를 무조건 믿는다. 성경은 모든 의와 도덕과 구원의 원천이며 최종 권위이다.”라고 밝혔다.

환난 시대를 대하는 교회의 역할 강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2월 14일(목) 오전 10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순복음민들레교회(담임 김주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한석현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대표기도,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린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새움교회)의 마 24:3-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헌금기도, 김주성 목사(민들레교회)의 헌금묵송, 직전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 순서에는 지방회 각 회부를 처리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고윤정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예배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2월 17일(주일) 군산 새벽별교회(담임 고현진 목사)에서 고윤정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증경회장 고현진 목사의 사회로 회계·재무 박운석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훈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민 21:4-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야 삶의 승리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2부 파송식에서는 박상규 목사의 집례로 서약 및 공포, 고현진 목사의 선교사 및 가족소개 후, 지방회 부회장 심혜원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김중곤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터전 위에 서는 목회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2월 12일(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속성리170번지 찬양교회(담임 김효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남순 목사(혈본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진현 목사(이전 순복음교회)의 기도과 사회자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중찬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 19:30 말씀을 본문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의 고난



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장차 영생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전하며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후 성백달 목사(오성시라교회)의 헌금기도와 김효진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김남

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찬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특별히 지방 회원들 간에 서로 섬김을 자청하며 파스타, 샌드위치, 비게트 빵, 김치 등을 가져와서 전 회원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근 찻집에서 오음득 목사의 섬김으로 치를 마시며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을 기억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2차 조찬기도회

“3.1절의 기독교정신 계승, 바로 선 국가 만들어야”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2월 27일(수) 오전 7시 동산교회(담임 황기식 목사)에서 2019년도 제2차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독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앞장서 국민들과 함께 조국 대한민국을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변역을 이룩하기까지 그 발

판을 마련해 왔음을 기억하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삼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인사말, 고문 임기석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시 78: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

교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 기독교정신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전하고 3.1절의 기독교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2부 기도회는 삼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인도로 공동회장 박노섭 목사가 '민족 복음화와 아끼연을 위하여', 경찰교육원 원목 박건구 목사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하여', 자문위원 이광로 목사가 '아산시 번영과 지도자를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가 '성령 등정책과 인권도래안 반대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3부 보고회는 삼임회장 조아철 목사의 사회로 자문위원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정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연합회대표회장 손혁목사와 부회장 정현원 목사가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와 바른인권위원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목회자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2월 14일(목)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순복음전원교회(담임 배용환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정찬식 목사(송곡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순복음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약 4:13-17 말씀을 본문으로 '천을 행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가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신하 지방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

의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를 마치고 총무, 회계에 대한 행정보고를 한 후, 순복음전원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누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신앙의 경주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2월 14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장세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와 대표기도,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히 12:1~2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순교자들을 같이 경기장을 둘러싼 하디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선수로서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죄의 포로가

되면 삼손과 같이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무게를 벗어내고, 하디한 것을 바라보지 말며,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함께 결승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축복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천교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사회로 각 부 보고사항 및 안건토의 등 회무 처리를 하였는데, 특별히 3월부터 격월로 시행기로 한 기도회의 진행 방법을 정하고 3월 설교자를 제비뽑기로 선임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장세영 목사)에서 제공한 갈비뷔페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예수이름교회 창립감사예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1월 22일(화) 오후 2시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전, 김리함 목사의 찬송 인도시간을 통해 은혜로운 찬양을 하였으며, 이날 예배는 부회장 겸 총무인 김정근 목사의 사회, 최월성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양승혁 전도사의 특송,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행 2:42-47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는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교회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다"라며 "예수이름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여 날마다 부흥해 되기를" 축원하였다.



이어 회장 반인홍 목사의 청림 및 취임 공포, 서기 정진균 목사의 축사 및 권면, 회계 이한숙 목사의 헌금기도, 유재진 전도사의 찬무, 김진원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 목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이름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친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동안 예수이

름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자의 광고와 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창립감사예배를 모두 마친 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료와 식사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나라의 안전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기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2월 18일(월) 오전 11시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겸 총무인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의 사회, 손인환 목사(새벽교회)의 대표기도, 전정배 목사(순복음하늘교회)의 성경 봉독, 지방회장 반인홍(송도순복음교회)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빌 4:10-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로,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다. 둘째로,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셋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



의 비결을 배웠다"라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목회자들도 바울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숙 목사(사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

회는 사회자의 인도로 나라와 민생 안전을 위해 '교단의 발전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3부에서는 지방회모임 토론회 및 회의의 안전을 처리하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최형택 목사

· 교단 전라지방회 중경회장
· 평양은혜와전리교회

비 내리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가끔 외로워 질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량하게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한 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 독차지를 받았던 가구였을텐데 이젠 쓸모없게 되어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한 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지만 또 어느 순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건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 줄 때 외로워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서 살지만 화려함 뒤에 슬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셨지만 유독 아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좋지 않았습니

다. 치매의 원인은 무려 70-80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50-6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는 병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외로움과 친밀합니다.

한번뿐인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았던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엄청난과 신비로운사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여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이보다더한신비로움이 더어디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안에 계신다는 사실, 거름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알지니.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진히 가르치시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배신을 당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에, 아무도 나를 격려, 사랑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매순간마

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 합니다.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힘이 되어 주세요.”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신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

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는다. 3·1 독립만세운동(이하 3·1운동)은 민족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이 2,0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전국의 232개 부·군 가운데 229개가 참여하였으며, 1,500건 이상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한 운동은 우리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와 체포, 더 나아가 살해의 협박 중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당시 2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서 불과 1.2%를 차지했지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며,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보아도, 기독교가 22% 정도가 15%, 기타 종교 2%로, 기독교가 이운동을 주도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1919년 4월 말까지 투옥된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인

이 2,120명으로, 천도교, 불교, 유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에서도 기독교의 적극적 참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 16인 가운데, 목사가 10명, 전도사 3명, 장로 2명, 집사 1명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이 운동에 참여한 것임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민족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김없이 그 헌정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 같은 헌신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애국 종교로 자리매김하였다.

3·1운동의 여파는 커서, 그해 4월에는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에서는 군사조직이 이뤄져서 일본군과 무력으로 대결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3·1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전 국무총리인 위문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는 말하기를, 첫째는 ‘열등민족’이라는 굴대를 벗고 일제의 강점을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찾으려는

거룩적인 민족 운동이었다. 둘째는 근대 한국 민족운동을 한 치원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셋째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용해된 민족적 에너지가 민족 독립운동으로 동태화(動態化)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넷째는 민주 공화정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을 가져왔다고 정의한다.

결국 3·1운동은 단순히 만세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주독립운동 정신의 고취와, 전 세계에 우리가 자주독립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해방 후에는 근대 국가 수립과 민주·민중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똑바로 정립해야 한다. 이 운동에 나타난 정신은 자주독립, 정의, 인도, 생존, 존영, 평등, 평화였다. 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북한지 역은 아님)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사의 주역이 된 것이다.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무엇을 배우며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첫째는 화합과 하나 됨을 배워야 한다. 당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됨과 타종교들과도 연합을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거룩적인 3·1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있어서도 이정표로 삼아야 할 덕목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때이다. 이념이 다르면 취와, 전 세계에 우리가 자주독립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해방 후에는 근대 국가 수립과 민주·민중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계층 간, 세대 간 차별을 줄여야 한다. 3·1운동에는 반상(班常)의 구별이 없었고, 빈부의 차이가 없었으며, 도·농 간에 격차가 없었고, 종교 간에도 간극이 없었으니, 오직 민족을 살리고 애국하는 일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차별이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때, 민족이 살고 조국도 사는 것임을 보여 준 것이며,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므로 3·1 정신을 통한 애국애족의 정신은 이념 대립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해졌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3·1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해 나가야 한다. 민족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 하고, 평화를 사랑함으로 남북통일의 건전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모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정부에 제안할 것은, 헌정부에서도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때에도 우리 기독교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뺀 3·1운동에 대한 것은 무의미하며, 정치적 견해나 이유로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킨다면, 이는 역사를 왜곡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거나, 정치·정파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적어도 3·1독립만세운동의 주체는 관(官)이 아니고, 민(民)이 주도하였으며, 우리 기독교가 그 핵심에서 앞장서고 희생하였으니, 이 명백한 역사가 재현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동 정

국제협력민간협 회장에 양호승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이 지난 2월 21일(목) 국제개발협력 민간협회의회(이하 KCOC)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KCOC는 월드비전, 조목우 산아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세계 여러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사업을 하는 137개 NGO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협의체다.

나사렛대, 중소기업탐방사업기에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가 지난 2월 13일(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중소기업탐방 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사렛대는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전국 29개 위탁운영기관 중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권역에서도 유일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탈북 여성들, 유엔서 북한인권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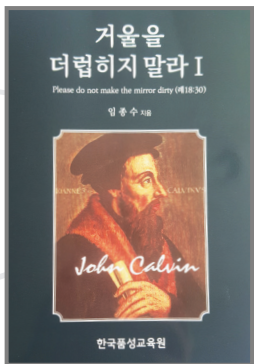
디펜스포럼재단(대표 수잔 솔티)은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총회 기간인 오는 3월 15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탈북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잔 솔티 대표는 “실제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폭행과 북한 보위부원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지, 장기기증 소식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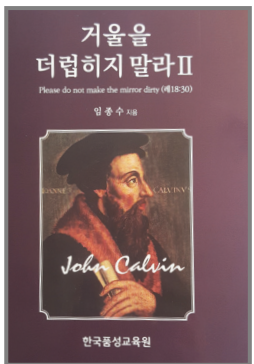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2월 18일(월) 서울 광진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전 축구선수 김병지 씨의 장기기증 홍보 소식을 ‘전한이’로 홍보 촬영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에도 본부 소식지의 표지 모델로 한 차례 등장한 바 있다. 이번 촬영은 김 씨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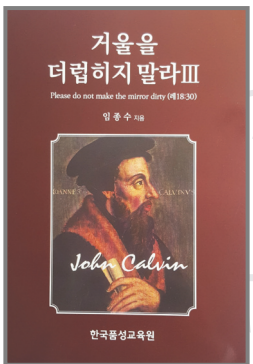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시론

이상원 교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①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태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유원지에 가면 뽕망치를 가지고 열 몇 개의 구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두꺼비 머리를 때려서 잡아넣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놀이기구의 특징은 한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꺼비 머리를 때려서 잡아넣으면 열 구멍에서 튀어나오고 열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꺼비 머리를 때려서 잡아넣으면 조금 있다가 그 열 구멍에서 튀어나오고 이것을 때려서 잡아넣으면 다시 처음 구멍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비 머리는 끊임없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예 놀이기구 안에 두꺼비 머리를 잡아넣으면 잠시 딸깍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자동기계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시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에 고쳤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름없는 선전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으로 정의한 후에 동성애를 애국된 성행위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독교계의 거센 비판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제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제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2013년 2월에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0명이 제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의치 않아야 전통적인 성(sex) 평등 사회를 젠더(gender) 평등 사회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선거공약에 담아 발표하였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헌법 차원에서 합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이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운동은 중단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만료된 국가인권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대체하여 향후 5년간 국가의 정책을 지도할 새로

운 국가인권계획안을 2018년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인권계획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권고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고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교활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시(市)인권위원회를 두고 시인권위원회가 조례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인권위원회는 설립 되자마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시인권위원회는 시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들은 대외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인권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시차원의 기관도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이 차별금지법이 되는가? 문제는 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가? 여기서 시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례안이 명시하지 않은 규정은 상위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보호의 대상으로서 19가지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성애나 동성애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을 근거로 고용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차 및 수사기관에의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위 규정들이 그대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그 자체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바로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현장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에서는 세 가지 성교육 교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성교육표준안입니다. 이 표준안의 내용은 전통적인 성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에 대하여 줄기차게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의 이름은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젠더평등이 상당 부분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인지적 성교육입니다. 성인지 성교육은 100% 젠더 평등 교육안으로서 동성애와 이성을 동등한 차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합법화교육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잘못된 성이라는 말이 낯설고 이상하게 인식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인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처럼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사조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시대사조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사조로서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철학적 배경인 신마르크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배경인 후현대주의적 상황윤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 배경인 쿼어 신학입니다.

Ⅱ. 철학적 배경: 신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소수의 부르조아 계급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사회로 분석한 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의식적인 혁명을 통하여 부르조아 계급을 축출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처음부터 실패로 끝날 운명을 안고 탄생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다하여 일하면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다하여 일하고 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타적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가지지 않은 능력 위에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타적이 아닌 인간으로 하여금 능력만큼 일하게 한 다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무후무한 국가의 독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명서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다자성에(난교 폴리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기정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숭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에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다가,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지향을 아무런 설명 없이 많은 차별금지사유 중의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국어사전을 바꾸고(2002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희매체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2003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는(2009년) 등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여 왔다.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려 7차례나 시도하였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했고, 강제력이 동원되지 사람들은 능력만큼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의성은 죽었고 생산성은 하락하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실험은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1992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을 전후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실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추동력은 성적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적 충동은 윤리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파악한 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 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의 각종 정책과 법을 통해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윤리도덕과 사회체제를 사회학적 성(gender)에 근거한 사회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사단체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체제로 바꾸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헌법합치를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에 주장,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셋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의 헌법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넷째,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조차 바꾸려 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2019. 2. 12

교육 자율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학교를품는교회모임,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
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외

다음호에 계속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3월 20일(수)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우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2회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안·터·뷰>>>

목회자·교육자·문학인으로 연합활동에 평생 헌신



한국교회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성원 박영률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형연합집회를 비롯 다양한 교회연합 활동을 감당해 오면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것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었다. 정직과 진실을 외쳐온 그가 최근 칼럼집을 출간하고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 한국교회연합을 위해 평생 헌신에 오셨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지요?

저는 젊은 시절을 한국대학생교회(C.C.C.)에서 고 김준곤 목사님을 모시고 민족복음화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많은 다양한 연합활동에 참여해 왔지만 그중 88세계복음화대회 총무, 1995년 기독교 21세기운동본부 사무총장(96세계선교전략대회) 등 한국교회의 대형집회의 실무책임자를 맡아 봉사하였고, 한국교회부활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발행인 박영률 목사

절연합위원회 상임총무를 수차례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를 하였으며 연합운동과 청소년선도운동, 남북교류에 앞장선 것이 인정되어 국기로부터 국민훈장(200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운동에 실무책임도 맡았고 대학강단에도 43년간 강의하면서 2008년 정 교수로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NGO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기도하던 중 (사)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의 이사장으로서 모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여 본토인이 본토전도를 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뜻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중독복지전문인대원을 설립하여 책임을 맡아(총장) 사회의 문제가 되는 알코올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중독, 성소수자들의 성 중독 등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지도자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중독문제의 해결이 없는 건강한 복지국가 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선 급한 것이 전분지도자 양성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생각되어 다음 학기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 목사님은 시인으로서 다양한 문단활동을 하시는 데 언제부터 문학에 뜻을 두셨는지요?

제가 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작문시간에 선생님께서 칭찬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직원지원원으로 또한 대학 국문과 재학 중에는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이은상 선생(가고파 작곡가)이 선정하는 ‘시’ 대회에 작품(머루 살·옥수수 등)이 선정되어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분단에 등단해 올해로 53년이 되는데 그동안 한국시문학상, 목양문학상, 제7회 한국기독교문예대상 문학부문 대상, 제1회 나빛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분단일은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 국제펜클럽한국본부평화작가위원회 위원, 마포문인협회 고문,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한국 크리스천문학가협회 중앙위원,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 발행인 등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발행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 문인들의 활발한 문학활동을 진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문학지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발행하는 계간지로 금년으로 9년째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로시인 권영태, (예)한글재단 명예이사장 이상모 박사, 평론가협



회장을 역임한 김봉곤 박사,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유승우 박사, 경희대 명예교수 원은순 박사, 작가회 대표회장 조운과 선생(옥경이·야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 작곡) 등이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데 모두가 편집이나 책의 내용이 격조 높다는 평을 해주셔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로선사상과문학을 통해 신인 77명을 발굴했으며, 이들 모두가 시인·수필가·소설가·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문학상을 부활시켜 유능한 작가와 시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어떤 책을 내셨는지?

시집으로는 한줄기 바람 되어와 공동시집으로 순문학, 사랑을, 빛을, 내가 본 구름으로, 웅해가 있으며 곧 시마루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칼럼으로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언덕밭을 갈며와

이번에 발간된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등 4권이 있습니다. 그밖에 리더십과 교회성장, 청소년지도 이렇게, 목회서신연구, 박영률 교수 정년퇴임기념문집(정년퇴임 때 제자들 봉정), 정년퇴임기념 논총, 한국교회와 박영률 목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시집 정리와 그간에 문학평설을 묶어서 책을 낼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집회에서 특강한 것을 묶어 박영률 목사 특강이라는 책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직접체험하고 경험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회연합운동과 이면사를 후배목회자들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하나마 자서전도 하나 남겨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시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낱자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시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2길 27(103호) 국가발전기독교연구원 TEL.02-706-9860 H.P 010-5253-7932

제100주년 3·1절 국가기도회

- 주 제** 대한민국 국민이여! 3.1절 정신을 상기하자
일 시 2019년 2월 27일(수) 오전11시
장 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중앙교회 서울시 관악구 솔밭로 28 (T.02-884-4541)

설교	대회사	축사	축사	축사	격려사
 공동대회장 김노아 목사	 공동대회장 이광용 목사	 기독교TV방송 상임고문 최의범 목사	 교회연합신문 대표 강준오 목사	 (사)예정인 고문 송기호 목사	 (사)예정인 고문 김원식 목사
사회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기도	만세삼창	축도
 (사)예정인 상임회장 변권능 목사	 예정교수총회 총회장 조요한 목사	 세계선교복지선교총회 회장 최명철 목사	 예정기독교총회 총회장 손영란 목사	 예정합동선교총회 회장 민철진 목사	 (사)예정인 고문 김수영 목사
3·1절선언문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예정비전총회 총회장 차요한 목사	 예정교수총회 총회장 이호안 목사	 예정합동선교총회 부총회장 이석수 목사	 예정합동선교총회 부총회장 조영구 목사	 예정합동선교총회 부총회장 신승도 목사	 (사)예정인 상임회장 오선미 목사

대 회 조 직

- ◆고문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 강기영 목사 예경수 목사 이원일 목사 김명복 목사 사재복 목사 송기호 목사 정태복 목사 김우영 목사 영장호 목사
- ◆다임장 김노아 목사 이광용 목사
- ◆준비위원 조요한 목사 변권능 목사 안병삼 목사 최요한 목사 이호원 목사 조영구 목사 신승도 목사 이상수 목사 김명복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 최태원 목사 박용기 목사 이상원 목사 김병선 목사
- ◆공동회장 고경수 고성용 박도영 권준태 권혁은 김병선 김수영 강성태 김성곤 김성종 김원익 김연선 김노아 김홍식 김성식 김명복 김홍필 김기영 고대위 고재만 권병선 권태경 계승창 계용규 남주식 문인숙 박기태 박경자 박요한 박영삼 박종복 박지현 박정원 박찬업 박용수 박원철 박경호 신상규 서상은 서승원 오석표 오세훈 이강조 이기원 이명용 이치자 이준호 이상수 이상원 이영원 이종희 이종호 이종근 이주호 이종재 이광용 이창진 이현수 이광문 김연태 유재연 윤명관 육송자 안성순 안미경 염동진 안진희 장광남 정희일 정철수 장수현 전수용 전창민 최상환 최광열 최영석 최정규 최정화 최현봉 하수복 하도경 홍인도 권영원 홍정희 황인옥
- ◆합동총무 김능려 김상기 김원주 김병은 김용희 김중태 김태곤 김형원 고대위 강경록 박영태 박용기 서준호 신석만 송복순 손정섭 이시량 이진희 이종욱 이훈식 이훈우 이현나 이원희 안병희 오수숙 오소현 양준배 원정태 정도순 전귀만 조주자 조해순 조원석 정영숙 차병희 최영선 최영복 한성훈
- ◆서기 최요한 목사
- ◆외계 하석수 목사
- ◆감사 김태지 목사 이광우 목사
- ◆분과위원회 기획본부 위원장: 안병삼 서기: 이종재 위원: 권태경 계승창 최현필 황수중 예배본부 위원장: 오선미 서기: 임인드리 위원: 황경수 육송자 서상은 김명복 봉사본부 위원장: 최요한 서기: 김성종 위원: 고대위 정희일 김병주 박정철 홍보본부 위원장: 김명재 서기: 최정철 위원: 안성순 박종복 박찬업 이광용 동원본부 위원장: 변권능 서기: 조보배 위원: 박종복 차승민 최현필 김용진 사회본부 위원장: 이호원 서기: 박경자 위원: 계용규 안병희 정은영 박은숙 여성분과 위원장: 임은선 서기: 정영순 위원: 문인숙 이훈식 최희영 이현나 재정본부 위원장: 하석수 서기: 강경록 위원: 오수숙 원정태 김석숙 이치자

- ◆협찬: 교회연합신문 복음신문 목양신문 기독교한국신문 한국기독교신문 CTS기독교TV
- ◆공동주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75교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전화: 02-706-2970~1, FAX: 02-706-2990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월드뷰티핸즈, ID Hair와 함께하는 외로운 환우 어르신 위한 뷰티서비스 실시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는 지난 2월 19일 세계적인 헤어디자이너 그룹 ID HAIR(대표 위문미)와 함께 파주시 세계로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헤어미용네일, 피부건강관리 등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뷰티서비스는 지난 12월 월드뷰티핸즈와 ID HAIR와 뷰티서비스업무협약(MOU)을 맺고 첫 공동 사업을 진행했다.

최애스터 WBH회장(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은 오늘 뷰티서비스 진행 취지에서 “K-뷰티분야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외로운 환우분들을 찾아가 뷰티서비스와 함께 삶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치유와 회복의 뷰티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번 뷰티서비스는 최애스터 교수(신한대)와 최성임 교수(경인여대의 피부과)와 네일서비스를, 헤어미용에 한승철 원장, 신지안 실장을 비롯한 조세희, 장선주, 고경선, 조아라 헤어디자이너, WBH에서는 장현일 이사장, 조원주 감사가 함께 섬겼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포럼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



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

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 정부의 1365지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지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루터대-민달팽이사회적협동조합, MOU

장애아동의 학습 및 직업재활 분야에 상호협력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칠)와 민달팽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문철영)은 지난 2월 11일(월) 루터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단체는 앞으로 루터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실습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 전공과 학생들의 예비 직업인 양성 교육 및 직업훈련기회 제공, 특수 장애인의 학습 서비스 체계적인 지원 관련 보수교육 및 업무협력, 발달 장애인 관련 사업개발 및 공동연구 협력 발전을 도모 장애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류를 등을 협력하기로 하여 장애아동의 학습 및 직업재활 제반 분야에 대해 상호 간의 관심과 폭넓은 상호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민달팽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아, 장애

인, 노숙자, 미망인의 돌봄 센터로 운영해 왔다.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없이 음식에서 20년간을 사회적 소외계층을 섬기다가, 최근 2018년 12월 18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민달팽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의 학습서비스 지원과 정서함양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생활의 토대 마련해 주기 위해 특수아동지도사 교육, 장애통합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루터대학교 권득칠 총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는 일꾼을 키워나갈 루터대학교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달팽이 협동조합과 함께 실제적인 사회봉사를 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GS SHOP, ‘액티브러브’ 시니어봉사단 발대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 청소년 멘토 활동 예정

세대 간극 해소와 인성교육을 위해 시니어봉사단이 나간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GS SHOP과 함께 ‘GS SHOP 시니어봉사단 액티브러브’ 발대

식을 지난 2월 18일(월)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가든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S SHOP 시니어봉사단 액티브러브(이하 시니어 봉사단)는 세대갈등과 인식격차를 줄이고, 청소년들

의 인성 증진을 위해 기획된 시니어 세대 봉사단이다. 기아대책과 GS SHOP은 나눔과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총 30명의 봉사단을 뽑았다. 전문 상담사, 전 전남 영광군 부군수 등 다양한 경력의 시니어들이 선발됐다.

시니어봉사단 1기로 활동하게 된 성우 모 씨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미래 세대에 게 멘토가 돼 주고 싶어 지원했다”고 선발 소감을 밝혔다.

선발된 봉사단원은 올해 말까지 기아대책이 운영 하는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 10개소와 서울과 경기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동체 의식, 소통, 존중 등을 주제로 인성나눔교육을 강의하고 강의안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나눔으로써, 봉사단들에게는 소통과 자아발견의 기쁨이, 청소년 세대에게는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배움의 기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결식아동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 위기가정 돕기 모금 캠페인 펼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국내 결식아동 및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고 지난 2월 21일(목) 밝혔다.

이번 디지털 모금 캠페인은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들’을 주제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소년·소녀가장 난민의 상황을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월드비전은 결식아동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굶는 아동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 모금 캠페인을 준비했다.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은 317234명이다. 이들은 지역자치단체 급식센터 및 아동급식카드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광고는 오는 3월 31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 포털 배너 광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디지털 광고 배너 클릭 또는 월드비전 홈페이지 상담센터 대표전화(02-2078-7000)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국 8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통해 국내 2천여 결식아동 가정에 매일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 영양 교육 프로그램인 ‘쿡앤썬썬’, 학교와 협력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아침머표’ 등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많은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의 병입으로 인해 영양불균형 상태에 노출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과자와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결식아동을 위한 캠페인에 많은 온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열방을 깨우는 혈몬산 기도의 집 (역대하 7:14)

금요 철야기도 안내

1.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3. 자녀들(영적문제) 가정문제

강사 : 임마누엘교회 신석범 목사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시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신석범 목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생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3.1운동 100주년 나라사랑 콘서트

연주회 통해 나라사랑 의미 일깨워



3.1 운동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콘서트가 지난 2월 16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2019년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을 기념하고 나라사랑을 다짐하기 위해 열린 콘서트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홀리씨즈교회 교회학교 SDC인터내셔널쿨(이사장 서대현)과 국회제대법인 3.1운동 유엔유네스코등제 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열렸다.

SDC인터내셔널쿨 학생 300여명과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한 대형 행사로 치러진 이번 콘서트는 퍼포먼스, 뮤지컬, 오케스트라, 합창 등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SDC인터내셔널쿨학원의 워터 인텐시브코스 수료생도 함께 열렸으며 양예찬, 이광일 등 4명의 학생이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고 80여명 학생들이 이 리더상, 모범상 등 각종 상을 받았다.

3.1운동 100주년 나라사랑 콘서트의 첫 무대 오프닝은 SDC오케스트라단(지휘 이상욱)이 맡아 50여명의 학

생오케스트라단원들이 민요메들리 더 그레이티스트 쇼맨 The Greatest Showman(영화 ost)를 전문연주자들 못지않게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차아리딩 댄스 「주님과 함께 아리랑」이 화려하게 공연무대에 올랐으며 탈춤 「splendor of a king」, 블랙라이트 「after life」이 공연이 이어졌고 SDC 서예와 학생의 영어스피치도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전통춤 공연인 「Dance Viva Africa」, 스캇 드라마 「I'm yours」, 뮤지컬 「마지막 외침」, 대한독립 만세와 합창이 공연됐다.

이 행사를 기획 연출한 홀리씨즈교회 SDC인터내셔널쿨의 서대현 이사장은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세대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일깨워 주고 다시 한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잡아 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낙태죄 폐지반대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최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며 여성의 75.4%가 현행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의 개정을 원한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자 일부 언론은 여성 4명 중 3명이 낙태죄를 반대하니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조항의 위헌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일부 의료계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문제, 여성의 건강권 등의 사유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수술이 빈번하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낙태죄 법 조항은 사문화됐으니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며 "법 위반자가 많으니 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폐지하는 게 시대정신인 양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자!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복음을 인간에게 전한 게 아니고 사단마귀도 인류에게 끊임없이 비진리를 전파합니다. 먼저 창 3:1-5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민 35:25-33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실족케 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비진리의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노아의 전도를 듣고 방주로 들어오려는 노아의 에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벧후 2:5) 물신편을 받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대답하게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비진리로 미혹하여 실족하도록 미혹하고 비진리를 전파했습니다(마 4:1-11).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비진리를 전파하는데 지금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한번 냉철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비진리를 전파하는 사단을 대적하여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가족세트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살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저는 가족세트전도 12주 교육을 받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족세트전도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시료'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둘째, '무지역'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셋째, '무차별' 전도대상자가 누구든지 영접기도가 된다.

넷째, 전도용품전혀 없이도 1시간에 12명 등록이 된다.

다섯째, 초스피드 능력전도로 3분 안에 교배까지 볼 수 있고 등록기념사진을 찍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능력전도를 전수시켜준 가족세트전도 회장 박영수 목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세트전도 서울중앙구 지부장 / 윤미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교연, 백사마을에 사랑의 연탄 3만장 전달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보탬

해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실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2월 21일 오전, 연탄값 인상으로 후원회 손길마저 뚝 끊긴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을 찾아,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3만 장(1장당 가격 800원×3만 장=2천4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교단인 대신, 개척개신, 합동개혁, 호헌, 합동해외, 합동총신 총회와 군포제일교회, 영안장로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성민원 등 교회와 단체, 국제위원장 김승경 목사, 봉사위원장 남찬목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50여 명의 한교연 임직원들 비롯해 군포제일교회, 성민원 봉사자들은 연탄은행(영)가 있는 마을 한복판으로 이동,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옮기는 릴레이 연탄 배달과 지게와 손수레를 이용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가가호호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얼굴과 옷에 연탄의 감정이 묻어나도 봉사자들



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섬긴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교연이 지원한 사랑의 연탄 3만 장은 백사마을 주민 500명이 한 달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양으로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에 권태진 대표회장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뜻"이라며, "한교연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앞장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면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창립 43주년 예배

1대 김충기 목사·2대 피영민 목사 등 순서 맡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난 2월 3일 동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최병락 담임목사의 인도로 2대 담임목사 피영민 목사의 설교와 1대 담임목사인 김충기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약한 팔을 들어 올리라(출 17:8-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피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가 손을 올리

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다"며, "그런데 모세의 손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아말렉에게 심판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며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를 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

도를 높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충기 원로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려 목회했다. 3대 최병락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상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2월 21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주잔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잔미교회)의 사회로 안병섭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기도, 회계 박영옥 목사(순복음잠잠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계 2:18-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진실을 모른 채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니 불편합니다"라며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



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김성규 전도사(순복음갈릴리교회 부교역자)의 헌금기도와 홍현철 목사(은혜총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에서는 정갑효 목사의 선교사 파송(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사를 나누고 순복음주잔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흥규 목사)는 지난 2월 1일(금)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에 소재한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을 겸하여 가진 예배는 김영권 목사(은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인복 목사(송죽교회)가 기도하고 회장 안흥규 목사(한사랑교회)의 합 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의인으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회원모두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나아가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하고 오찬을 나누며 지방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며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진 채 온사우월주의, 반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온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온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써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무'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임원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

당지는 제출자의 인화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원에게 공지한다.
-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입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8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혹자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법률관 사전(6개월 내 촬영) 3매
-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19. 3. 29(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정의섭 목사
(010-8145-445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정 의 섭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화와 꿈을 주시며
기도할 때 주님나라 들어가는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용서와 화해가 강불처럼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태산 같은 문제가 밭이 되는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침 받아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쓰시는 신실한 일꾼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브온에 태양이 머물고,
아알론에 달이 멈추어 서며
기도하는 시간에 거센 파도가 잠잠하고 풍량이 그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출범을 심각히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노인과 장애인, 탈북자, 노숙인 등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이다. 그러나 출범 선언문에 사회적 소수자로 언급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는 그 원인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2016년 10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200여 개의 논문을 검토한 후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던 과학적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는 뜻이다.

한동대 사태를 통해 현행법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을 행하는 사람을 성 소수자라고 간주하고, 사회적 소수자로 옹호하려고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근원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함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그러나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행위는 결코 옹호되어야서는 안 된다. 마치 마약중독자와 흡연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이나 담배 그 자체를 옹호하고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이라고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준칙 등을 통해 동성애가 에이즈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줄

기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매우 악한 법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건강한 사회를 걱정하고, 자기 자녀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악한 프레임에 씌우려는 것이 아발로 다수 국민들을 향한 역차별이며 진짜 혐오스러운 행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명히 밝혀왔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존립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 2. 2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348개 대학 3,239명 교수 참여)

사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세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15일 “우리는 단지 북한 의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은 물론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과시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라면 당장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만 중단하면 큰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응하는 양보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총 합의하는 모양새만 연출하고 회상의 합의라고 자화자찬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불모로 잡히는 이런 나쁜 거래를 막아야 한다. 유일한 대안책은 대북 제재의 유지·강화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자 청와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는 것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는 북핵 폐기와 관련

하여 역할분담을 거론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북핵폐기에 앞서 한국의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미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와 의회의 반대 입법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대북 지원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예외 허용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우회하는 제재완화를 요청한 것인데 매우 위험해 보이는 발상이다. 비핵화 전인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지원을 시작한다면, 협박이 유지되는 대북 제재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만다. 그 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 폐기의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성패(成敗)가 달렸다. 한반도 비핵화 같은 막연한 언급이 아니라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 개념부터 명시해야 한다.

핵은 재앙임을 깨닫고 핵폐기만이 정상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의 길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결단해야 한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였고,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세운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다.

오도된 국가인권정책 수립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을 실현하고 전

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 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는바, 지방자치 단체들의 ‘인권조례’ 등은 조례제정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원평 교수(부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란 제목의 토론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적지향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당한 차별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이며, 정당한 차별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성애는 가치중립적 사유가 아닌, 가치 의존적 사유로서, 인간의 근간인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인권’이 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날 때, 엄청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말 2:3

2019 훌륭한 군사

시니어 1기 모집

일시 / 3.18(월)-3.20(수)

대상 / 40세 이상

장소 / 피산순복음교회

회비 / 무료(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문의 / 010-5145-3816 (언택트 후 등록)

ENHAKKORE MINISTRY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2019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 기도회

■ 주 제 : “이슬같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자”(호 14:5~6)

- |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4월 30일(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
- | 장 소 | 순복음반송교회(한순남 목사 시무)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63 교회 : 051-544-9155
-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 | 회 비 | 1만원

♡♡♡ 초대의 글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새 생명의 아름다운 계절에 남쪽의 따뜻한

바닷가 부산에서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수고 하시는 여교역자 동역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 모여서 성령충만 은혜와 충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살렘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2019년 춘계 단합 기도회 일정표

4월 29일(월)	4월 30일(화)
	7시30분 아침식사
	8시30분 폐회예배
	10시 부산탐방
	11시 점심식사 후 개교회로
3시 접수	
4시 개회예배	
6시 저녁식사	
7시30분 부흥회	
9시30분 숙소로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4월 15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동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엘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천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말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장	서울중앙지부장	경기지부장	경기중앙지부장	경기남부지부장	경기북부지부장	일산지부장	김포지부장	대전지부장	충북지부장	충남지부장	충주지부장
시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에심나리교회 표현자 목사	종성현생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화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비 목사	대청산기도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부장	영남동지부장	부산지부장	부산동지부장	전북지부장	광주지부장	호남지부장	인천지부장	은진지부장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유리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